옥누몽권지사

되서며 간랑으로 쇄고의의 조정되믄 다 빙리욕드

옥누몽 권지사

화셜 만셰황얘 앙읍돌봉을 보시ᄃᆡ 그ᄃᆡ 군심을
ᄉᆞ제ᄃᆡ신을 모아 의논ᄒᆞ실ᄉᆡ 참지뎡ᄉᆞ 노균이 독
왈 변방ᄒᆡᄌᆞ이 방비치 못ᄒᆞ여 적셰여ᄎᆞ강셩
ᄒᆞ오니 본져 형이 나ᄂᆞᆫ ᄉᆞ을 논리ᄒᆞ여 다ᄉᆞ리시ᄂᆞᆫ 복
으로 자용 안을 ᄎᆞᆨᄎᆞᆨᄒᆞ여 불ᄒᆡᆼᄒᆞ여 일이 급ᄒᆞᆫ지라
경에 여ᄂᆞᆫ 북으로 출ᄒᆡᆼᄒᆞ소리옹 란을 직희시게
만젼지계될가 ᄒᆞ나이다 을 각뇌 즉ᄒᆞ며 만ᄉᆞᆼ지극
으로 만병을 두ᄒᆞ엿지 도셩을 바리시ᄃᆞ 일ᄒᆡᆫᄃᆞ셩
을 직희시되 잇가 급히 텬병을 ᄃᆞ 발ᄒᆞ소 마ᄋᆞ미 맛
당ᄒᆞᆯ가 ᄒᆞ나이다 샹이 의올ᄒᆞ소 옥음을 나리

와대장의깃당현인틱을ᄲᅢ앗실셰잇쇠소ᄃᆞᆫ
이뤄간ᄒᆞ여왈도적의변화불측ᄒᆞ여숙이도쳔
의온다ᄒᆞ니깍을지엄슬이다ᄒᆞ여혹왈복흉
노을쳐결ᄒᆞ여쳔혹초평군ᄒᆞ나물이숙비방
이라ᄒᆞ여마음이되셔상계ᄒᆞ난지라재마다ᄒᆞᆯ젼
ᄒᆞ물원치아녀몬복졔신이혹으로빈ᄃᆞᆫ대란살인
롯일인도발ᄒᆞᄂᆞᆫ져엉ᄉᆞ이쳔ᄒᆞ단셔ᄒᆞ여손왈짐
이복덕박횡ᄒᆞ여ᄉᆞ이을걸복지못ᄒᆞ여숙백ᄒᆞᆫ롱
셔조셕의잇도다칭셩의도란지휘을기둥ᄒᆞ건지
ᄃᆡ온회시녀용수을나리시니쳬ᄒᆞ시이녀어ᄂᆞᆫ물네
시엇니리엽ᄒᆞ여홀연일위소년쟝ᄉᆡ상이ᄒᆞᆯ반ᄎᆞ왈

신이보소ᄒᆡ와ᄇᆡ흔제ᄅᆡ연ᄉᆞ온ᄃᆡ 천은을입ᄉᆞ와일
본도감ᄉᆞᆸ거ᄂᆞᆯ본ᄒᆡ연ᄉᆞ오나맛당이견마여힘을다ᄒᆞᆯ
와폐하근심을덜으시게ᄒᆞ오리니일여지ᄉᆞ을벨
시병남방을삭평ᄒᆞᆯ가ᄒᆞ나이다말ᄉᆞᆷ이강리ᄒᆞ고
홍본을졈문여연셔명ᄋᆞ로ᄂᆡ옥노연통이각샹을
경동ᄒᆞ며별갓흔봉안의정기어ᄅᆡ여가이만인ᄃᆡ
젹혈ᄀᆞ샹에다여ᄂᆞᆫ병부시랑낭창숙이라황각
거시랑의자원ᄒᆞ믈보ᄃᆞ뒤경ᄒᆞ여당졀의즉ᄋᆞᆯ낭
죄홍국은빅년셔싱이오나히어려쇄ᄉᆞ을므르오나
군되죵입을맛기지못ᄒᆞ올지니되ᄉᆞ의슐록ᄒᆞ미
업게ᄒᆞ여소쇄연비ᄎᆞ의동반죵일원노장이칼을
알ᄅᆞ조게ᄉᆞ뢰ᄒᆞ여왈승샹의말ᄉᆞᆷ이오ᄅᆞ

도쇼어다 녯젹의 황젹은 이섬슨쇠의 거병강
동ᄒᆞᆫ 손쳑은 섬섬쇠의 황힝쳔하ᄒᆞ여시나
옹병장낙은 져조의 잇ᄂᆞᆫ지라 ᄉᆞᆫ이 잇지아니ᄒᆡ ᄒᆞᆫ
지혜 갈다 ᄉᆞ지 토빈은 형셩 독셔ᄒᆞ여ᄂᆞ 지혜ᄅᆞᆯ
칠종칠금ᄒᆞ여시나 이졔 낭시랑이 비록 만ᄉᆞ 셔ᄉᆡᆼ
어나 국가을 위ᄒᆞ여 불불ᄒᆞ신ᄃᆡ 나가ᄒᆞ고 충셩을 아
히여긴지 시오위지을 ᄎᆞᆨᄒᆞ여나 그 용명이 그러ᄒᆞ신은
셩각ᄒᆞ온ᄃᆡ 낭시랑을 쓰지 아니셔 유종의 일국
이ᄂᆞᆫ 책의 졸혈이 될가ᄒᆞ나이다 ᄒᆞ니 이ᄂᆞᆫ 호분댱
군의 쳔ᄂᆞᆫ 홍이라 ᄂᆞᆯ은 모발이 벽셜갓ᄐᆞᆯ 외가슴은
쇼ᄒᆡ와 번지건ᄒᆞᆫ 낭복의 신장이 팔쳑이온 만부ᄂᆞᆫ
당ᄌᆡ용이 잇시나 당나라니 만곤의 우에 ᄐᆡ노 장ᄒᆞ여

발연노즐왈 올마 무빅 감히 국지뒤 순의 참곰ᄒᆡ리
오목복지용 ᄯᅡᆫ 밋ᄂᆞᆫ 장내이 영쳐 젹은 도젹도 ᄆᆞ지
못ᄒᆞ며 이갓치 분ᄂᆞᆫ 이러ᄒᆞ니 두번 말ᄒᆞᆫ득 분뢰 번ᄒᆡ
삼즁을 호령ᄒᆞ되 ᄯᅡ뢰 된즁이 리연이 여러왈 노신
이일븐 ᄒᆞᆫ 뇌연서 늑울 ᄂᆡ여 근즐거시나 벅발이 셩을즐
내어지난 시을 당ᄒᆞ여 몸을 ᄀᆞ러 보왈 왕승을 보되즐
치엇가 이뫼 디갓흔 도젹이 ᄎᆔ가되 지난ᄒᆞ여 나방울
춘온ᄒᆞ나 몸 무장 상이 즁일 상뒤ᄒᆞ여야 보젼ᄒᆞᆯ이어
시긔온이러 상ᄒᆞ여 도셩을 바리 ᄀᆞ거 용란으로 ᄎᆔᄀᆞ
뢰ᄒᆞ나 ᄯᅡᆫ 일타록 불힝ᄒᆞ여 빅ᄯᅡᆫ 뒤 ᄀᆞ이 황셩을 쳠
박ᄒᆞᆫᄂᆞᆫ 시졀의 가기 ᄎᆔᄒᆞᆫ을 편지ᄒᆞ여 일뢰여도 ᄯᅡᆼᄒᆞ여
가변ᄒᆡᄒᆞ을 ᄌᆞᄒᆡ 보ᄂᆞᆫᄃᆞᆫ 엽술 가ᄒᆞ니 이어지ᄒᆞᆫ

심치아니ᄒᆡ가는신이비록무용ᄒᆞ여오나원컨ᄃᆡ
낭시랑을ᄯᆞ라도ᄎᆔ을도ᄋᆞ고쳔복션봉이되여나ᄆᆡᆫ
의ᄎᆔ즙을복졀의ᄃᆞᆯ일이다연ᄒᆞ외의귀홍이늠ᄂᆞᆫ
을여거ᄭᅴ등ᄒᆡ여빅발이창ᄃᆡ갓치되셔니뎐상
뎐하시신이그장계을칭찬ᄒᆞ시고상이되회ᄒᆞᄉᆞ즉시
병부시랑낭챵으로병부상서겸평남ᄃᆡ원슈
을비ᄒᆞ여ᄂᆞᆫ졀월을ᄌᆞ시와홍포금갑라뎐바얼릴라
황금쳔일을주시ᄃᆞ고본장은녀쳔등으로ᄒᆞᆯ좌ᄅᆞᆯ
장은졈션봉장을비ᄒᆞ시고휘ᄒᆞ시의남교의젼송
ᄒᆞᆯ되파ᄒᆞ여시니낭원ᄎᆔᄒᆞ온슉녕ᄒᆞ고복츙의ᄃᆞ되오
니ᄯᅢ고장츌어본젼의가ᄃᆞᆨ츌여ᄉᆞ이라츙은ᄉᆞ낭을

쎄와숙이환경허여불배라노라복인이왈숙
뎌의은을잡아왈우리복쳬아직도노흔쳐아니홀녀염
니퇴왈그상가그상가공홀을쇄와숙이로라오라년자
의상연숙족허니원쉬모복인비석을울여허쓴한
눈물니물씻잣지못허니원의평셕히왈신되여
난시을당허여출천을갈진허여주가을도으여바
야흐로죄허다이레몸이장쉬되여이여주느지헐을
허니이어스러어이평일을조홀허든불의뢰오원쉬황
흉젹이숙변허그울소러침소의다흔소리울보이
복모의감지울복닥허니소래우이더지못허니어는
셩혼축녀이넘어시나강쥐원별의흔연셔어허미야
후리허불명허미라원쉬소복닥왈셩이구타여호

텬해ᄉᆞ온ᄃᆡ이다해나황이ᄂᆞ휘을라지령ᄒᆞᆫ며
그번다해니염게헐가해나이다원쇠ᄉᆡᄒᆞᆫ연을ᄃᆞᆺ
ᄃᆞ령석복람해ᄃᆞ외당으로나가야ᄎᆞ야을복ᄒᆞᆼ을
되쳐져기ᄃᆞ횡ᄌᆞ헐신낙그외ᄡᅡᆫ을묵우ᄃᆞ원쉬ᄒᆞᆼ으
ᄌᆞ은강으로벽모홍월을좌우의세우ᄃᆞᆫ싱여오
ᄌᆞᆫ니시별이심찰ᄒᆞᆫ쇄라상쳘갓ᄒᆞᆫ호령여상야갓
ᄒᆞᆫ거상이삼ᄌᆞ괴쟝이불강양셔자아이오혀려친
분박거혐、해ᄉᆞ모신을통해신ᄃᆡ원쉬단의ᄂᆡ해법
마ᄋᆞᆯ바ᄌᆞᆫ상이출복어졀츙해시며우용이친ᄃᆞ허갈
아ᄉᆞᆫ대ᄒᆞᆫ일이후로ᄂᆞᆫ외을경을밧지나ᄂᆞᆫᄉᆞᆫ이하
조외평은ᄯᅢᄂᆞᆫ졀참ᄒᆞᆨ계해자해시며원쉬감우을ᄂᆡ
음어상벼을ᄲᅡ시ᄃᆞᆼ구ᄒᆞᆨ왕갈ᄂᆡᄃᆞᆫ지해와령은을ᄇᆞᆫ

노야시나이다허거늘셩이듯고놀나싱각허되
임의결작헌비나어리일이즙히되눌니풀으리다
네이제드러가나셔어헌즌최로주주를의거허니너게
잇슨유뎌를이졔상즁이가져가시면편즁의슈를다잇
실거시나엇지쇄젼허되오른즁이엄츅헌여남지.
의츌입도어렵거든허믈며셔여이엇지헐에오
호여이옥이싱각다가일메을셩각ㄷ동츈을불
너약속을이르ㄷ왈네즁의의최다가왼슈의회
최져나가시거든네게알게허라허엿더니몬득고
가이휜쳔허네동셰촹황이보ㅣ되이곳의쳐
남은조빕빅여벌박거실너모즁의잔치시ㄷ이다허거
늘최아실님의편낭이즁즌울라쾌ㄷ유계을가지

드진쳔의이로ᄒᆞ며나와잔이방ᄒᆡ나이ᄯᅥ니월식조용쳡
디거치창검이삼엄ᄒᆞᆫ디각ᄀᆞ방위을직희여향
의평쳬ᄒᆞ여우의엄숙ᄒᆞᆫ리와들쾌셔북진의
올나동ᄃᆞ라젼쳥하의섯시라ᄒᆡ암상의놉히안져
군즁경졈소ᄅᆡ을듯고ᄂᆡ삼경을보더니가줄셔ᄂᆞᆫ이우
ᄎᆡ을드러일즉을부니이쉬원ᄒᆡ랑즁의안져부ᄉᆞ
병셔감심ᄒᆞ여보더니안ᄃᆡ엽ᄂᆞᆫ옥ᄌᆡ셩이ᄒᆡᆼ인이ᄋᆞᆫ
현의들ᄂᆡᆫ병셔을노그지을기우려잠쳥ᄒᆞ니기현
이반긍의오ᄅᆞ평ᄒᆞ여쳐동ᄏᆡ안이 물이울닐은듯쳔
쳔고하이약을벌으ᄂᆞᆫ듯싱상현산동북ᄌᆡ셩이
양이라원숙의홍낭이엇기리현낭의예ᄉᆞ근조을거역
디못ᄒᆡ져오심궁의랑의ᄒᆡ여셩각즁ᄂᆡ기의션

낭의 기거괴ᄒᆞᆫ 이대ᄃᆞ 이 길쳥조뢰 반ᄃᆞ시 셩낭이
날을 보ᄃᆞ 뤼ᄒᆡ 이도다 ᄒᆡᄃᆞ 루시 츙ᄂᆞᆫ 아올 불니왈
이졔 ᄂᆞ셔 쳐음 ᄲᅥ 셔나 경아 ᄒᆡ니 항오와 ᄆᆡᆨ 츈을 화ᄂᆞᆫ
되못ᄒᆞᆯ지라. ᄂᆡ 이졔 평복으로 ᄉᆞᆯ횡고 뤼ᄒᆡ 나구
셜ᄒᆡ 말나 ᄒᆡᄃᆞ 심복 현비 일인을 다리고 가ᄌᆞ 한ᄃᆞ던
계우 현 일ᄂᆞᆫ 지을 ᄲᅢ여 ᄃᆞᆯᄃᆞ 젼봉을 나셔 ᄒᆡ니 ᄉᆞᆯ븐
취 호셔 을 ᄉᆞᆺ거 ᄂᆞᆯ 뢴ᄒᆡ 신권을 ᄂᆡ여 ᄇᆡᄃᆞ 박거ᄂᆞ 와편
호차오로 한ᄇᆡ 항ᄉᆞᆯ횡 헐셔 욱뢰 ᄒᆡᆼ이 오ᄒᆡ ᄯᅩ ᄉᆞᆺ
긔 ᄒᆡ 아여 연ᄃᆡ 와 웬ᄒᆡ 권 비을 보이 왈 ᄂᆞ가 ᄂᆞᆫᄃᆡ 길을
ᄯᅡ로라 ᄒᆡᄃᆞ 산샹을 ᄒᆡᆼᄒᆞ여 길을 ᄎᆞᆺ뢰 가더니 듕뢰 산
하의 셧다가 발거 무거ᄂᆞᆯ 원ᄒᆡ 다시 편비 ᄃᆞ려 왈 네

여거잇쳐나와도라오믈기다리라 ᄒᆞᆫᄃᆞᆫ동ᄂᆞᆫ울ᄒᆞ라산
상의울으나션낭이되울ᄭᅥ과ᄂᆞᆫ나ᄒᆡ얼상공의이길
여이쳐지즁ᄒᆞ시니엿가원쉬당얼젹쳐칠칠ᄂᆞᆫ여
지게울범ᄒᆞ니거ᄒᆡ되못ᄒᆞᆯ거라여뇌톳즘헬줄
알아시면아시의낭울어지술니ᄒᆞ여충젹이얼울
게ᄒᆡ엿시되오션낭이ᄒᆞᆷ누대왈쳡의비쳔ᄒᆞᆫ몸
으로귀문의안면이ᄉᆡᆼ소ᄒᆞ오니이졔당돌이울어가ᄂᆞ
울의거ᄒᆡ되오원쉬졸연집속ᄒᆞ여가ᄂᆞᆫ황시울쥐
여ᄉᆞ리다쳥ᄒᆞᆫ말이여대강일으도왈니낭의지경이라
인ᄒᆡ불이어나채거ᄉᆞ이거ᄃᆞᆯ십분조심ᄒᆞ여낭의도라
오물기다리라 부탁ᄒᆞ니울소ᄅᆡ와상의츙면ᄒᆞᆫ셩
미ᄋᆞᆫ인ᄒᆞ여돌보니잇ᄉᆡ되니심가ᄂᆞᆫ심가타션낭

됴흔이최상궁이원숑의쳬즁허셔모로이곳의
와오릐계시미불가ᄒᆞᆯ도ᄉᆞ이다이의우뎌울게여왼
슉거편뒤여왈ᄒᆞᆫ불이혹은궁즁의분이미될가ᄒᆞᆯ
여이리ᄒᆞ미니가뫼가소ᄉᆡ원쉬비다손뉘의니ᄀᆞ리심
연ᄒᆞ허나ᄇᆞᆯ슉즁에신의나져명로뫼뒤헝은ᄒᆞ니라
션낭이뎜의로리와녕신의발현ᄒᆞᆯ때딩손이라
태동은초셜등허ᄃᆞ문편의니아가와ᄉᆞ시굴닐의니원
외기경의ᄃᆞ터와부뫼션낭을불쉬아리던은울ᄂᆞ
와욱한현거질이ᄅᆞ음ᄂᆞ고시거뤼여셔고ᄅᆞ결ᄅᆞᆫ
미일편빙심의ᄃᆡ울이부ᄃᆞ리이셔리가ᄂᆞ려연리
톄반ᄃᆞ즐소월이ᄃᆞ인비스ᄃᆞ즐ᄒᆡ여시녀부ᄌᆞ싱헌보
현ᄉᆞ즐ᄒᆡᄃᆞ외의부벼순향즐ᄌᆡ을ᄌᆞ근을ᄒᆡ옵ᄂᆡ고

톄을 블ᄋᆞ너울 ᄉᆞ졔ᄂᆞᆫ 륙셰 쳥뎡으로오ᄂᆞᆫ 황셰ᄂᆞᆫ
병을 친ᄒᆡᄂᆞᆫ 아니오니라 공이 울ᄉᆞ졔 더친 일ᄂᆞᆫ 살
ᄂᆞᆫᄂᆞᆫ의 일쳘은 ᄂᆞᆫᄂᆞᆫ의 이것ᄂᆞᆫ 비녀 갈어 하쳐라 복나의
두려ᄂᆞᆫ 후셰의 약ᄒᆞᆫ이타 ᄒᆞᆫ복의 ᄒᆞᆫ슉ᄒᆡ 모ᄂᆞᆫ 일
을 비아니나 십분ᄒᆞ야 꾸ᄒᆡ며 가ᄂᆞ의 더ᄒᆞᆫ 폐 ᄇᆡᆼ게 ᄒᆞᆯ
라 ᄉᆞ톄 츅병ᄒᆡ니 이여 좌책을 넘희ᄂᆞᆫ 쳔낭이랑ᄒᆞ
의쳐 슌비ᄒᆡ니라 이여 후원별당의 낭의 쳐소을 졍
ᄒᆡ니 울ᄉᆞ톄 쎤 육으로 별당길을 인도ᄒᆡ화 ᄒᆞᆯ너욱
이션낭을 양셰 우ᄂᆞᆫ 별당으로 가ᄂᆞᆯ셔 그 ᄒᆡᆼ보ᄃᆞᆼ지을
보ᄂᆞᆫ 문득 ᄒᆞᆼ낭의 션년ᄌᆞ태와 졀갈을 본 ᄒᆞᆸᄉᆞᆫ ᄒᆞᆫ긋게 ᄒᆞᆫ
으묵ᄂᆞᆫ 보ᄂᆞᆫ 누위 방ᄂᆞᆫ ᄒᆞᆫ 여비 쳥ᄒᆞᆫ 가셔을 감ᄒᆞᆯ

거못ᄒᆞᄂᆞᆫ지라션낭이와여ᄇᆞᆯ왓ᄉᆞᆯ차환이어셔
날을보ᄂᆞᆫ쳬리술ᄒᆡᄂᆞᆫ노옹이ᄃᆡ옥오셜왓ᄉᆞᆯ쳔ᄒᆞ엿
친ᄒᆞᆫ이이셔귀셕을감ᄎᆞ리못ᄒᆡ나이다션낭이웃
ᄃᆞ왈차환이ᄇᆞᆨ귀보ᄂᆞᆫ즁의인ᄂᆞᆫᄒᆡ신ᄒᆞᆨ인을ᄆᆡ셔무
순ᄒᆞᆫ에이간노옹이귀왈쳔비ᄂᆞᆫ본ᄃᆡ강남인물노
ᄒᆞᆨ연을일ᄂᆞᆫ고이곳의왓더니금일낭ᄌᆞ를뵈오니
쳔ᄒᆞ인라ᄒᆞᆯ갈본방불ᄒᆡᆫ곳지잇ᄉᆞ와ᄂᆞᆫ연시ᄉᆞᆷ셜
란ᄒᆞ여비감귀셕을감초지못ᄒᆞ나이다션낭왈과
환의ᄃᆞ족ᄂᆞᆫ누구노옹이ᄃᆡ왈당즁ᄒᆡ일방ᄒᆞᆫ누의
잇연강남홍이ᄋᆞ이다션낭이ᄃᆞᆯ나왈네임의홍낭
의ᄌᆞᄒᆞᆫ인ᄃᆞ즉어찌이곳의잇ᄂᆞᆫ다ᄒᆞ노옹이ᄃᆡ비ᄒᆞ

평현거동은 운쇼져의 비기리 못ᄒᆞ여 흔연쇼왈
낭의 절셩은 ᄒᆞᆫ을 연지오 쾌나 열졸을 운이 쾌야 보관재 시상
군의 사랑ᄒᆞ시미 비상ᄒᆞ므로 다ᄅᆞᆷ을 빛해 백년을 기약
ᄒᆞ여 일언을 졉결 거니 ᄒᆞ여 슉려ᄒᆞ미 이시리오 시ᄆᆞᆯ 구흔
ᄒᆞ시리어 간담을 쇠로 비ᄌᆞ리어 운회ᄒᆞ미 엄거ᄒᆞ리
쳡낭이 ᄉᆞᆫ해 일을 펼쳐은 노ᄌᆞᆨ장 화의 비쳔한 봄으
ᄌᆞ유 범녀 ᄌᆞᆨ의 울흔 ᄲᆞᆯ 숨을 드지 못ᄒᆞ여 이ᄌᆞ진 ᄒᆡᆼ실
라 ᄎᆞᆨ현 거동이 비ᄭᅥᆨ일 ᄎᆔᄒᆞ라 ᄒᆞᆷ일란 엄ᄒᆞ여 셔은 량
울이 샹쳡ᄒᆡ 오ᄂᆡ 진ᄒᆡ ᄌᆞᆨ쳔의 그ᄒᆡ 몸을 봉ᄒᆡ시
불읍 지ᄉᆞᆫ을 ᄆᆞ로ᄒᆞ여 쇼져 ᄒᆡᆼ쇼ᄒᆡ나 ᄂᆞᆫ ᄒᆡ우여 일ᄂᆞᆼ
은다 ᄀᆞᆷ ᄎᆔᄒᆞ믈 나ᄂᆞᆫ 본셩이 ᄉᆞᆫ람을 ᄉᆞᆫ러 ᄌᆞᆨ 그 심ᄌᆞᆼ을
감ᄒᆞ지 못ᄒᆞᄂᆞᆫ ᄂᆡ여 현ᄌᆞᆨ으로 ᄌᆞᆨ을 ᄇᆞᆯ모로아 ᄌᆞᆨ이 ᄀᆞᆺ을

낭낭은북강이왕기하여상총을드의심뢰케비울나.
졀낭이괴슌히드로되옵더생각하여당혹이찜보
눈옷난숙의칼이엇더줄더이퇴황소뢰든이날뉵
희울뫼부죽하니칼날은괴려괴나와울모든볏귀
여렴드러하여흔연심서불쾌하더라이일황시쳔
낭울는죄별당의와담소하더니쳔낭의낭리시녀와
부의시랑하엿거늘황시분뫼찻자흰옷다려드온
시녀이나쳔낭이디뫼강죽서라하온비르줄소이다.
황시죽서낭수의갈온티낭은시비울독어조라아롬
다. 온용모롱지거둑허드라그일홈이북어서노쳘낭
이쥐뫼하나는소쳥이어뎐이심순쇠오뫼인이옹

별치아니ᄒᆞ오나하나ᄂᆞᆫ조연이ᄂᆡ지츰셩일쇠
오현경이심이ᄒᆞᆫ암ᄒᆞ여사환이분별치못ᄒᆞᄂᆞ이다.
환시왈나도ᄂᆞᆫ간시너이셔일인은출일이오알인은
도화라위인은옹별ᄒᆞ나흉직ᄒᆞ니이후ᄂᆞᆫ동몽
흘너셔로부터비ᄉᆞᆺ당ᄒᆞ도다ᄒᆞ더라숙얼후셜낭이
소현을다리고환시침소의가소졔ᄒᆞᆫ년짐슉ᄒᆞ며
왈내평ᄒᆞ뫼로이잇셔심이곡ᄒᆞ더니낭이신은
이츠지니다졀ᄒᆞ도다.이의출일을도라보아왈오날
은기셜낭이라.즁일ᄉᆞ견ᄒᆞ뢰ᄒᆞ니ᄌᆞ연이별당의의죡
잇쎠ᄂᆞᆫ책ᄒᆞᆯ계ᄒᆞ여ᄂᆞᆫ온쇄ᄌᆞ가놀다오랴흉의ᄂᆞᆫ이숙
별이ᄎᆞᄒᆞ여별당의가ᄂᆞᆫ조연이ᄒᆞᆫᄌᆞᆫ간의안전ᄒᆞ더

츈향이 그 말을 장아 왈 네 그리ᄒᆞ라시 말으라 너ᄂᆞᆫ 져
말ᄂᆞ게 안져라 별당은 ᄯᅧᆨ 조 쳠ᄒᆞ얘ᄂᆞᆫ대 조 본을 게
며 붑벽 ᄉᆞ창의 셔화를 가득히 붓치ᄂᆞᆫ 통 게아 되통
주단 ᄒᆞᆫ 다 쳥홍 ᄎᆡ죽의 보ᄂᆞᆫ 져 ᄒᆡ 아니 쳥 관ᄃᆡ리 은
츈월이 회ᄂᆞᆫ이 쳥찬ᄒᆞᄂᆞᆫ 녀 왈 우리 그ᄃᆡ 녀 번이야 가 셧
더니 ᄂᆞ 존연 왈 날마도 옥셔ᄂᆞᆫ 후 가 일 오시아 야 삼 ᄃᆞᆫ 변
도라가시니라 츈월을 왈 흑시 ᄎᆡ짐ᄒᆡ 시야 죤연 왈 무
오시ᄂᆞᆫ 거손 일흑이 보지 못ᄒᆡ 엿노라 츈월이 회ᄂᆞ나
ᄒᆡ여 웃ᄂᆞᆫ 왈 게ᄉᆞ 쎌 ᄆᆞ이 을 게 시나 날은 숙이 지 ᄆᆞᆯ
나연 왈 나ᄂᆞᆫ 다 ᄒᆡ 엿 시나 무여 츌 숙인 다 ᄒᆡᄂᆞᆫ나 츈월
이 우으며 죤연의 거의 다 여 득어 이제 ᄇᆞᆯ을 ᄶᅵ 나 말을 ᄂᆞᆫ
뎌 존연 왈 그ᄂᆞᆫ 내 몰으나 우리 낭ᄌᆞ 상공 ᄯᆞᆯ 숨

울ᄃᆞᆺ지아니ᄒᆞ시며즘실은봉우로나로소쇄히
시나ᄀᆞᆺ바지간므로노라ᄒᆞ고왈이여시뭇ᄃᆞ쳐ᄒᆞ여더니
문득보니연옥에오다마화점ᄃᆡ의쇠발을벗추거
ᄂᆞᆯ옥원이가며일을ᄉᆞ졔ᄒᆞᆫ거실거시거가노라ᄒᆞᆯ
ᄃᆞ가더라황시선낭을가리오나반ᄂᆞ려ᄇᆡ셧ᄂᆞᆫ즉
치여당소ᄒᆡ더니상ᄂᆞ즉판을물내노고왈낭의져러
이갓ᄒᆞ니옹낭이쇠화의션소쳐이ᄋᆡᆫ일리ᄂᆞᆯ시을쇄
져로을보ᄂᆞ쳐ᄒᆞ노라션낭이옷왈쳥기린거ᄂᆞᆫ불다
옥평낭의게통신이나ᄒᆞᆯ싸ᄒᆞᆷ이나옷져즉ᄒᆞᄒᆞᆯ진
을술은다ᄒᆡ러잇가소쇄더소ᄒᆡᄃᆞ도화을불내봄방을
가쳐오라ᄒᆞ고ᄲᅧ왈이순에심ᄃᆞ즁기로ᄒᆞᆯ시ᄒᆞᆫ소편ᄒᆞᆫ데니
낭은두어ᄌᆞᆯᄒᆞᆯ시쓰기을순양쇠니ᄒᆞᆫ나낭이ᄒᆞᆯ더ᄂᆞ

지아니ᄒᆞᆫᄃᆡ 황시 웃고 친이 붓슬 잡아 두어 줄 글시
을 쓰ᄂᆞᆫ 왈 내 임의 졸한 소견으로 ᄎᆡ시낭은 사
양치 말고 시험ᄒᆞ라 낭이 마지 못ᄒᆞ여 한 줄을
써셔 황시을 쥬어 황시 ᄃᆞ시여 옥의 ᄒᆞ여 보ᄂᆡ되
삼쳥 ᄒᆞᆫ 왈 낭의 길 ᄎᆡ는 나와 맛찰 비 아니로다
또 ᄃᆞᆯ은 ᄎᆡ 잇난나 설낭이 쳘텬져 ᄌᆡ어 ᄉᆡᆼ어ᄒᆞ다
론ᄒᆞ리 저 업나니다 ᄒᆞ고 드라가니라 설낭의 총명지
ᄒᆡ로 어리 황소져의 교시ᄒᆞ물 보고ᄃᆡ 오ᄆᆡᆫ을 연유
ᄒᆞ고 셩ᄂᆞᆷ이 유아ᄒᆞ여 홍낭의 초강ᄒᆞ미 업ᄂᆞᆫ
고로 차마 혈ᄒᆡ지 못ᄒᆞᆫ 또한 책 ᄡᅥ 본의 고감ᄒᆡ 거스
지 못ᄒᆞ여 혹 일 왕ᄂᆡᄒᆞ더ᄂᆡ 일ᄂᆞᆫ 원외 황소져을
불너 왈 앗가 너의 부친이 너게 편지 ᄒᆞᆫ 너의

퇴부인이병환어계시나너울보내라하셨나
니슉일갓쳐시랑ᄒᆡᄃᆞ슉이오게ᄒᆞ리라환시슉병하
져ᄃᆞ본복의이로니각뫼부러왈약가니편지을보내
신병이주즁타ᄒᆡ거다ᄒᆞ오ᄒᆞᆫ주녀의모친얄이
주가와셔이어보낼거시니친환이잇다ᄒᆞᆫᄃᆞ보내랴
즐기니친이편지ᄒᆞ여시되이제너을보니병셰이
간ᄃᆡ로염스니뒤란치인ᄂᆞᆫ병의노부을놀니게ᄒᆡ
엿나ᄂᆞᆫ소ᄅᆡ훗연ᄃᆡ왈되모의나라ᄂᆞᆫ병은낭으로
곳쳐러나와ᄆᆞ음의ᄭᅥᆺ친은즌ᄒᆞᆫ병은부모도모르거
나그외ᄐᆡᄒᆡᄭᅵ도셕의잇ᄂᆞ이다각녀경문왈너의부
순병이짐ᄒᆡᄃᆞ치지못ᄒᆞᆫ다ᄒᆞᄂᆞᆫ소ᄅᆡ흔불을지ᄂᆡ

한숨지고 말야 ᄋᆡ소ᄂᆡ을 ᄒᆡ연 ᄒᆡ온 가ᄉᆡᆨ을 올으시며
니ᄅᆞᆫ 누당ᄌᆞ을 맛나 각교의 손에 젼ᄒᆞᆫ이 직녀의 ᄶᅡᆨ
되이 황훈 심궁의 벽독음을 불으게 되온 ᄂᆡ여아의
화셩이 변ᄃᆞᆯ어 죽으니 ᄆᆞᆫ 가지 못ᄒᆞᆯ가 ᄒᆞ나이다 가
너 죽연 말은 노뵈 ᄆᆞᆯ 넌 ᄂᆡ 너을 어더 장홍 보옥 갓튼
ᄅᆞᆼᄒᆞ여 네 신셰을 누우의 손으 ᄌᆞᆺ쳔 가 셔ᄀᆞᆫ니 고ᄉᆞᆨ
졀을 ᄂᆞᆫ 시일으라 소ᄌᆡ오 열월 ᄂᆞᆼᄂᆞᆼ이 강죽ᄒᆞ거 셔
의 일리 쳔기을 졀연ᄒᆞ여 아ᄅᆡ온 음ᄂᆞᆫ 현ᄒᆡᆫ 실라
간약ᄒᆞᆫ 말노 상ᄒᆞ을 부동ᄒᆞ여 제 말ᄒᆞ게 황시ᄂᆞᆫ 나ᄂᆞᆫ
드뢰 올리 이여 ᄂᆡ 어지 ᄌᆡᆨ ᄒᆞᆫ 븐의을 ᄎᆞᄌᆞ 구아 ᄒᆡ위 기올
감슉ᄒᆞ리오 ᄒᆞ여 불공지ᄉᆞᆯ이 복슉ᄒᆞ온 중일 평세ᄅᆞ
불난 남이라 ᄎᆞᆯᄒᆞ리고 젼ᄌᆡ을 ᄇᆞᆺ저 말ᄂᆞᆫ 봄

울도 보ᄒᆡ래ᄂᆞᆫ 부인이 병소ᄒᆞᆯ 줄을 가련ᄒᆞ야 울어ᄉᆞ자
범의 골ᄒᆡ리ᄂᆞᆫ 션ᄉᆡᆼ그ᄯᆡ이 구가의 달녀셔 니상ᄒᆞᆫ 운노
혼ᄌᆞᆯ노 엇지ᄒᆞ시리오 네 도라가 ᄲᆞᆯ니 욕되미 잇거든 ᄎᆞ
라리 ᄌᆞ쳐ᄒᆞ여 욕을 보지 말나 이러듯 ᄒᆞᆫ을 젹ᄂᆞᆫ
도리라 소제ᄂᆞᆫ 불ᄉᆡᆨᄒᆞ라 ᄒᆞ직ᄒᆞ고 도라가ᄆᆡ 가며 ᄎᆞᄆᆡ ᄲᆞ보지
못ᄒᆞ더라 ᄌᆡ량음이 흘ᄂᆞ더니 난 원슈를 편편거십ᄉᆞ사
이 되니 녀홈이 진ᄒᆞ고 로중이 되니 천지 쳥낭ᄒᆞ고 엇홍
이 ᄋᆞᆺ술 헌ᄃᆡ 셜ᄋᆞᆼ이 후원 별당의 ᄅᆞ ᄎᆡ히 잇서 ᄂᆞᆫ리서
아조 난간의 괴엿더니 ᄯᅢ리거온이 날너 밝은 달은 공
홍의 노ᄒᆞ며 남으로 나ᄂᆞᆫ 기러기 소ᄅᆡ 쳐량ᄒᆞ니 션낭ᄂᆡ
길이 울쳥ᄒᆞ여 알슬 족다이 봄의 ᄂᆞᆫ ᄃᆡ염 쳐ᄅᆞ 기ᄅᆞᆯ
울ᄒᆞᆫ은 으리 못ᄒᆞᆯ ᄂᆞᆫ ᄅᆞ라 그ᄂᆞᆫ 일 스일을 지니알 가련

쥬지월ᄉᆡ에 누구보ᄌᆔ 경ᄉᆡ ᄌᆞᆯ다 ᄒᆞ니 졍이 오ᄂᆞᆯ 방
의 쳡의 심ᄉᆞᆫ을 일은이 ᄌᆞ다 ᄒᆞᆫ데 우흥ᄒᆞ나 상을 젹시
더니 션낭이 이야 심ᄒᆡ 불인ᄒᆞ여 실의 돌ᄅᆞ지 ᄒᆞ여 무득
홀연 월이 ᄉᆞ제의 겻ᄋᆡ 홀노 리귀 소제 ᄒᆞᆫ번 ᄋᆞᆯ 보ᄂᆡ시며 소
졍과 연을 잠간 방ᄅᆞ아 보ᄂᆡ라 ᄒᆞ니 션낭이 의리ᄒᆞ나 슈
셕지 연니 ᄒᆡᄅᆞᆫ 낭에 다ᄒᆡ 가셔 ᄉᆞ져 우시거시ᄂᆞᆫ 입슈을
조심ᄒᆞ라 낭비 응명ᄒᆞᆯ 가니 즉시 월이 쳔낭의 방ᄒᆡ
가 희ᄂᆞᆫ 니우 오비 돌 낭져 경일 쳑ᄇᆡ우지 안니ᄒᆞ게 ᄒᆞ셔
다가 이제ᄅᆞ 쳑ᄒᆞᆫ 경의 뫼ᄌᆞ이 제시니 우ᄒᆡ 샹ᄋᆞᆫ 쥴
졀ᄒᆡ 신틈시 조더ᄒᆞ거ᄂᆞᆯ 쳔낭이 ᄉᆞ복다ᄒᆞᆷ을 니ᄭᅢ
우어 왈 ᄂᆞᆫ 소비 일은 즉 이샹 문ᄒᆞ야ᄂᆞᆫ 과구 즁 소ᄅᆡ을 미ᄂᆡ
보ᄋᆞᆺ시나 낭ᄋᆞᆫ 갓지 아ᄂᆞᆷ다 ᄋᆞᆫ울 ᄭᅩᆷᄋᆞᆫ 금시 ᄌᆞ편이 ᄆᆞᆺ우

리소져의 ᄃᆡᄒᆞ야 시원통ᄒᆞ여 나이다 셜낭이 평ᄉᆡᆼ…
십년쳥수의 비ᄒᆞᆫ 거ᄉᆞᆫ 엽스나 낙챤 발기ᄂᆞᆫ 알안 듯
난나흠일을 차환의 눈낙은 밧지 아니리라 ᄒᆞᆫ 월이 ᄯᅩ
연부당이더라 소쳥 ᄌᆞᆫ 연에 ᄒᆞᆼ 소져의 부모 모ᄌᆞᆯ 소
져 침실의 이ᄅᆞᆫ니 소져 ᄒᆞᆫ 연 소ᄅᆡ일을 ᄆᆡᆺ 참상 ᄆᆡ부의 서
숑강노어을 보내엿기ᄯᅢ 보ᄂᆞᆫ 쳬ᄒᆞ여 불너시니 눈열
시슈ᄂᆞᆫ 울리ᄆᆞᆯ와 발ᄂᆞ나 낭배 웅변ᄒᆞᄂᆞᆫ 도화 ᄌᆞ리 부려
국ᄒᆞ의 나려가 일변 국을 쏘리ᄂᆡ ᄒᆞᆫ을 저더니 셜낭이
홍월의 발이 국ᄒᆡ 음흉ᄒᆞᆯ ᄒᆡ여 자기 ᄒᆡ 벽ᄒᆡ 물너 되
엿시니 져다 ᄯᅡᆯ 쥭을 ᄲᅥᆯ 게ᄂᆞᆫ 아심 도록 자지 아니ᄒᆡ니
낭배의 도라오 물기다 지더니 홍월 소쳥 ᄌᆞᆫ 연이
가더니 어나ᄂᆞᆯ 밤을 깁ᄒᆡ서 소비가 보리니다

불너즁젹을살리아간곳지업스니왼외뢰ᄋᆞᆼ도
로즁젹을다시볼라션흑ᄒᆞ며ᄃᆞ뢰뎜ᄂᆞ려ᄃᆞ니므
두즁월이모든뎡두와빗기쳐발올대도젹의츅
내니의쇠이상헌향기나니반다시셔상가물건이
타허내기려슈상을내긍이슉거려안으로드러가라
을니러의기리는로이그즉내여을뒤져보니한봉
편지드텻거늘즁월이회ᄃᆞ이우으며그즉내여의반
다시글허는도젹이■로다이엇지도젹허는문젹이
아니리요가다부인이보시게올리라흔대니가랑의도리
옹이부인이연ᄃᆞ을목로내즁월이스뢍흔변은소려
쳠ᄌᆞ의알■밤이깁기스비라허라즉져별당의겨ᄂᆞ
일ᄀᆞ지ᄋᆞᆼ뒤편도젹이신을버셔ᄃᆞᆯᄃᆞ별당난간

의셔나려오다가쳔에올보ᄂᆞᆫ부리블가의빌길
노박츈ᄭᅴ거로ᄌᆡᄃᆡ당으로나가담을너머가기소비
슉츈가담넘ᄂᆞᆫ거슬장으로ᄒᆞ여다가광지붓ᄂᆞᆫ그즁에
나만혜여왓시나부인은보소셔ᄒᆞ니게여느운너부인
왈척한울임의쏫츤시미다힝이라그냥쥭문전을
보아무엇혜리오어ᄊᆡ의황시챵황이로쳐와부
인놀나시믈뭇즙ᄂᆞᆫ젹회알지나부인왈혼부ᄂᆞᆫ
잠드지이니혀여더고소쳬디부쵸이오란티기눌
나혜여더니시너의그놋젼혜민리댱당의도젹이
드다혀기즙히왈나이다부인왈이너하별당의
도젹이드럿다가슉츈다쥴너렴부ᄂᆞᆫ빙시므혀

가ᄒᆞ던ᄎᆞ의거역ᄒᆞᆫ졀ᄒᆞ여져ᄒᆞ되불가ᄒᆞᆷ상
시와황시울쇼져의거ᄉᆡᆨ을보시고노즁궤아화
물보ᄃᆞ흘웰을조리보니옐셜낭이ᄅᆞ적히이ᄉᆡ셩
소ᄐᆡᆫ무즁의외지변이낫시니가히외조ᄒᆞ리라ᄒᆞ며
별당으로가니셜낭노긔졍ᄒᆞᆫ이이졍ᄒᆞ여죽하
예안쥐라가황시잇실줄며헐낭의ᄉᆞᆫ을잡고
누귀방ᄒᆞ여왈낭이부즁의드러와ᄃᆡ젼ᄒᆞᆫ곳
을못보ᄂᆞ니이런ᄃᆡ변지셜낭이기간요작흘낫시되오
셜낭소이ᄃᆡ왈쳡은분니외방쳔기ᄒᆞ와외가남은
불측이열녀히ᄂᆞᆫ계리ᄒᆞᆫ화를무츅ᄒᆞ다이다
거서니스소ᄅᆡ변을어ᄀᆡ죽히놀나리잇ᄂᆞ다ᄒᆞᆫ부

월이와갓치놀다가월이놀을보내고도로네네
게이상ᄒᆞᆫ단내어잇다술내잡간주경식이ᄒᆞᆫ연이
숙ᄃᆞᆷ의찻던나무을게여뵈인대춘월이나ᄃᆞ히욕
ᄃᆞ왈엇지되리김히못ᄒᆞ난ᄂᆞ연월몸의진인즉
ᄉᆞ귀범치못ᄒᆞᆫ다ᄒᆞ니질병의침노치못ᄒᆞᆫ다ᄒᆞ기
김히간수ᄒᆞ고ᄒᆞ니춘월왈나도ᄒᆞ나ᄎᆞ리라ᄒᆞ더라
이ᄯᅢᄂᆞᆫ팔월즁슌이라계졀의ᄎᆞᆫ이슬이나리ᄂᆞᆫᄉᆡ벽
의우지지ᄂᆞᆫ[내리거]소리귀ᄯᅮ리여ᄉᆞ람의비회을돕ᄂᆞᆫ지라젼
낭이심난ᄒᆞ야안졋더니밤이깁흐ᄆᆡ자과의우으나우현
회포을발ᄒᆞᆯ곳지업ᄂᆞᆫ평ᄉᆡᆼ낭에ᄂᆞᆫ광ᄆᆞᆷ올ᄂᆞᆫ편ᄂᆞ운
이누엇더니춘월이와급히문을열나ᄒᆞ거ᄂᆞᆯ현낭
이러나문을여러ᄒᆞ보니춘월이ᄒᆞᆫ손의초롱을

ᄅᆞᆯᄃᆞᄃᆞ리와쳔에월년은룰연이병이잇셔시셩셕의수
너이져못ᄒᆞ여다시못보ᄅᆞᆯ가ᄒᆞ노라쳔낭이ᄒᆞᆯ나보ᄂᆞᆯ로
쇄복ᄉᆞᆫ변환이출년이대단ᄒᆞ셔오월이말변대담
ᄒᆞᆫ내일변호ᄒᆞᆫ을곳고오쳥ᄒᆞᆫ연의ᄌᆞᆫ는겨ᄒᆡ이기너
왈ᄂᆞ곰야의쳔거쳥병ᄒᆞ여나셔ᄒᆞ롱이소ᄉᆞᆯᄒᆞᆫ여실이
되온귀어지불복의가리오여거ᄒᆞᆯ셜낭왈불복의
무상일노가난ᄒᆞᆫ출월일ᄂᆞ려으리가나이다선낭왈
이제나도소ᄌᆡ을ᄲᅢ오ᄌᆡ가ᄌᆡ출ᄂᆡ어소쳥을ᄒᆞᆫ와그
불을ᄒᆞᆷ릐의ᄒᆞ리와월일왈ᄒᆞᆫ업ᄉᆞᆯ쉬오기을친
ᄃᆞ이ᄒᆞ오ᄒᆞ이다ᄒᆞᆫᄃᆞᄂᆞᆫᄒᆞ롤ᄒᆞᆷ게물ᄒᆞᆫ뢰불을ᄒᆡᆼᄒᆡ
물ᄃᆞᄒᆞᆷ대을여ᄒᆡ쳐호롱불가리ᄭᅴ고ᄂᆡ고월을셩
너나되ᄒᆞ여는ᄇᆞᆯ이ᄀᆞᆸᄒᆡ벅는밤이ᄇᆞ이ᄂᆡ인다ᄒᆞᆫ

눈물이 혜연이 아니 초다 소비는 상복의 가셔
나지여 오라 하시니 가나이다 흐ㄷ나 가거늘 쳔낭이 추
시 소쳥을 쉬 와다 시 불을 혀라 흘ㄷ 주리ᄆ의 상을
차자 임은 혀 혈셔 소쳥이 터나 버눈 옷슬 차지 져ㄷ
리 엉난 ㄹ리라 찰ㄴ 가 온디 쳔낭은 불 읍어 혀다 쏫지ㄷ
니려 ᄅ두 허니 소쳥이 황망이 즈연의 져ㄷ 리울 안ㄷ 셔낭
울 셜앙 아 황시 침실의 이ㄷ 겨소 제 상의 ㄴ 어 신옹.
ᄅ리 쳔낭을 보ㄷ 반겨 웃을 ᄉᄂ로 맹인이 졍 화을 셜 가
추나 낭이 심아의 와 문병 하니 반강도 다 셜낭이 취우
의 아 모로 엥ㄷ 화로 의 낙이 숄어 넘ㄷ 져 하 겨놀 소져라.
져볼의 을로 회 어되 가나 버ᄂ 소져의 을 밧 거나 가려이 아나

넛더ᄒᆡ게몯ᄒᆞ이셔ᄂᆞᆫ이런되비ᄒᆞᆫ기병을당케ᄒᆞᆯ
셔난ᄂᆞᆫ흔배 옷슬버ᄉᆞ니일본ᄒᆞᆫ내이옷ᄉᆞ이의ᄂᆞᆫ되
러라 홀웰이그나무를비여ᄂᆞᆯᄂᆞᆫ길이낫게ᄒᆞ여왈ᄂᆞᆫ우
되ᄉᆞ려ᄂᆞᆫ젹ᄉᆞ의간ᄉᆞ을모ᄅᆞ시ᄂᆞᆫ중수를오ᄒᆡ젼ᄒᆞᆫ시
더니이런일에낫시나형홀ᄉᆞ변의월혼이되시러ᄅᆞ
다유ᄂᆞᆫ챵현아이엿지졈아햇ᄂᆞᆫ일이놓ᄉᆞ쳔ᄂᆞ즉ᄂᆞᆫ우
되와ᄒᆞ날을것치(이겨)못ᄒᆞᆯ원슈라ᄂᆞᆫ이ᄇᆞᄅᆞ려일러
빨나아이되홀비영당의옥여가을비ᄉᆞ려흉두ᄂᆞᆫ물
ᄅᆞ렌되부인이되졍ᄂᆞᆫ져련대홀웰이부이때여빌ᄂᆞᆫ
ᄃᆡᄉᆞ죄석ᄒᆞᆫ후선거불편ᄒᆞᆯ손본부의가득쳡나ᄋᆞᆯ지
어다ᄒᆞᆫ형ᄂᆞᆫ다려살시ᄂᆞᆫᄒᆞᆫ형을알이ᄇᆡᄉᆞ비ᄂᆞᆫ쇼

살비유되고록으니편런일이자다만흔심을
바는일국원노리신이챵곰쇼고을부지이일디
쳔기의손의축단말이소인뒤참이라허며한둑
히날치니각뇌손을보혀만을쳐며일어나갈오
리니빗당이가출칭독을다뤄고낭부의가슉인
울장아내여쳐쳐허뢰라의목인이각고을빗졉
아외를출옌를의쇼쳔을드도며낭부상뒤갈인을
오부동허여니아을걸뢰고져뒤고니아을의심헌
다려니상순온가지말으쵸쳐허며각노을부한젹룡
을니노흔허고평제염는노순이장중보옥으로이뎐
쇼고의부용을드르니면쳔쳔니의엇더허뢰오부
인의말을듯지안코순비헐쳐난니구로갈석쳥

각샹보ᄃᆞ시ᄂᆞ졔의 침소의 가쇄이 복을 보소셔 각과
최옹은 소졔 죽은 나조아 왓다가 ᄃᆞ려가 보라 ᄒᆞ여 볼 ᄃᆞᆺ
ᄃᆞᆫ 졍ᄂᆞᆫ 회ᄒᆞ여 일흔 형의 발 갓홀 진ᄃᆡ 아ᄂᆡ의 일명
이 쳬샹의 잇ᄂᆞᆫ가 시비ᄀᆞ나 광간 보ᄂᆞᆫ 쳬ᄒᆞ고 자원의게
당의 ᄂᆞ둉ᄒᆞᄃᆞ 각고을 소졔 침소를 보니여 소졔 짐지샹ᄂᆞ
의 누어 눈을 감ᄃᆞ과 석이 ᄲᅮᆫ어질 ᄃᆞᆺ 피나 각뫼 발을 맘
흑ᄃᆞ여 ᄌᆞ은 눈을 몽횡니 ᄯᅥ 최ᄂᆞᆫ 이 살ᄂᆞᆫ 돠 보니 온빈
온실ᄂᆞᆫ 쳐ᄒᆞ여 옥인을 덥ᄒᆞ 시여 원신을 짐 혹 ᄑᆡᄂᆞᆫ 화거
감ᄒᆞᄃᆞ 죽죽을 거ᄂᆞ지 못ᄒᆞᄂᆞᆫ 형샹의 연ᄂᆞ이 셔흑 니각
ᄂᆡ 갓거이 나아가 봄을 ᄇᆞᆫ 그ᄂᆡ 블니 넘ᄆᆡ 인못 ᄉᆞᆫ 국
영ᄂᆞ 이리 경이 ᄂᆞᆫ 네 아비 왓시니 눈을 ᄯᅥ보라 소졔 본ᄃᆞᆺ
혜ᄉᆞ 주ᄯᅧᆨ 흔 ᄯᅢ 후궁의 발노뒤 날흔 소ᄢᅢ 블흐흔와

에갓치이옥을깃치오나복망아ᄂᆞ라ᄒᆞᆫ니
마초ᄉᆞ쳐가과오ᄅᆞᆯ홀비양과이ᄂᆡ을ᄎᆞ자ᄂᆞᆯ여
흥보을젼헤기ᄅᆞᆯ헤왓더니셩은헤물보미이쳔힝
이와갓인을ᄎᆔ회히기ᄂᆞᆫ네의수가되여스니이ᄂᆞᆫ우복
의간메ᄒᆞᆯ비아니여지히여보소쳬ᄂᆞᆫ몰을울울
네왈이지경의이로오너소셩은ᄅᆡ렴쳐니ᄂᆞᆯ오
나기령을ᄒᆡᆼ히여즉인의히나변히이로을가ᄂᆞᆫ나
며
다작ᄂᆡ즉변이너미뭔외을보아소쳬다혀가기울쳥
헌래ᄂᆞᆫ이허락ᄒᆞ며가ᄂᆡ징이조ᄎᆞ와부인을보ᄂᆞ
소쳬의쥐란치아니물이로ᄂᆞᆫ회석이안변될줄
외ᄂᆞᆫ이아작히죽다ᄒᆞ고ᄒᆞᆫ등히여네거에ᄂᆞᆯ낫더니하
아변인명을오살헌ᄂᆞᆫ번헤엿조다부인이낭소왼ᄉᆞᆯ상

생각지아니시나니가각외부인의말을드르니어지
간현말이라그러이너겨왈네되을거시어래말
을드러의논혜티라을더라시의낭부의셔승이네
당의드러가복엳라울소쇄울대혀여황각그의
불이셔도네거여이꼿출네는져혀불의눈혈셔복
인이탄왈청이더강경자걸귀한손담을쥐병
벗기변초하나이혀불이나타나그하나을덥그쳐흘
변하나이져불상흘내상금은실불상낭흘손셜혀
흐소쇄원의채두왈네소한김곽현비라아즌의로
라오물기다려채져허계흘리라흘더라황부의셔
계소을보내여소쇄울다려길셔부인이소쳐

와손을잡아당히여왈노괴무덕ᄒᆞᆯ여가
도의일어현일이잇시니손인계참이라슈한슈즉
되오소쳬순ᄃᆞ이신음ᄒᆞ여담리못ᄒᆞ다만ᄒᆞᆫ물
을줄며하지ᄃᆞ복녀의이르니이혜위복인에사
갈지심으로한독ᄒᆞᆫ셜은의독거울도아계ᄉᆞ을비
줘내다가여의치흘너약인의ᄭᅩᆺ치츄절ᄭᅩᆺ지잇시
리요논흔현기욱을정동크괴너하을볼ᄃᆞᆯ대쌍
동류왈쳐음너의부친이태산을그롯ᄒᆞᆯ여우리
면내소ᄀᆞᄃᆞ로을젹게ᄒᆞᄃᆞ도나종의[illegible]비명읫귀
될변ᄒᆞ나보츄셜ᄎᆡ을아너라가이후간너의음
죽이여녀지견의갈줄일너오쳔ᄒᆞ라우리모녜본쳐
죽어보로ᄃᆞᆫ너만것지못ᄒᆞᆯᄃᆞ라ᄒᆞᆯ버쉬로복ᄒᆞᆯᄃᆞ방쳥

지되나이다상이그빗을뵈올줄시니황가니될일은
엽시퇴고ᄒᆞ여춘각고을반나우ᄒᆞᆫ책방ᄒᆞ여왕령
이다반쵤게반일ᄂᆞᆫ타일양아여근심되물성각지
못ᄒᆞ나여러ᄃᆞᆺ시원너였나노울가뇌웃ᄂᆞᆫ일을방셩
이비록불인ᄒᆞ나각외대신지절의잇셔여지ᄒᆞᆫ
갓ᄉᆞ졍반외ᄌᆞᆺ준여조졍ᄎᆔ별을도젹보지아니줄뢰
잇가이쇄황후이변신의나가염녀고모외잇실ᄉᆡᆼ아
니라줄노걸리조외는쳡뵈는조용졍의오로여론
간은회보업ᄉᆞ니염벌곰키아라실인ᄂᆡ우울여불소손로
대ᄉᆞ로근심ᄒᆞᆯ일이이연가줄나니우ᄒᆡ인아저졍의ᄯᅳᆼ
쾌을조용이젼알■ᄒᆞ여베올커줄방일셩실지졍이뢰
별그ᄇᆞᆺ랑ᄒᆞ여물아지못ᄒᆞ오비라황가ᄭᅴ분ᄂᆞᆫ

찬근동이가일을번곰잣채흡하여남방재근에천병
울도다하이관쥐즌뫼기다립라갓흐니일니흉되
거늘이아뢰오되두루하여시몬고의행을아져봇되
이다원쉬소원을이난잠간쉬여산녕하여토계를ㄹ
보호뻔오기을기가뢰한번신명질을여그누배을누
경으뢰러이뢰이러주뢰남방쉬흔이원수의구병호
물보는곤배을결쁜을여쇄수일외일쾌이보드니냥원
쉬제보일의무지강산의쇠오호병을합을여보둔장수
의복에을보ㄹ뢰러여번져쾌를살일여시왜초뢰는반
곤룸의롱우을일쾌여ㄹ흐로는살은벽일의별간
겨워뢰결가ㄴ련로울랏도러니본두냥리소변이자
하의쉬ㄹ함을여왼을원쉬이쾌리강뢰을쌔ㄹ쾌

ᄒᆞ시며어지나ᄒᆞᆫᄒᆞᆯ다가ᄂᆞᆫ실고쳐아히ᄂᆞ롬것
제러서나노완컨뎌도쳐창검으로옹을시험ᄒᆞ
그러ᄒᆞ나나아지뎌ᄒᆞᆯ쓰기을날되소쳐ᄒᆞᄂᆞᆫ음셩
이ᄌᆞᆼ고을올나ᄂᆞᆫ듯ᄌᆞᆯ나보다그소년을보ᄂᆡ션
장이ᄭᆡᆯ쳑이오뮈ᄂᆞᆫ즁이음으ᄌᆞᆯ나에ᄂᆞᆫ호협한
거상과담대ᄒᆞᆫ거즁이와모외낫다나더라그셩
명을부르ᄂᆞᆫ대일인에뒤왈소장은본대소죡
인으ᄌᆞ일인은살인ᄒᆞ기을조아ᄒᆞ기ᄌᆞᆯ일은으기을
조살ᄒᆞᆼ마ᄃᆞᆯ이라ᄒᆞ되ᄃᆞ일인은ᄃᆞᆷ나이인고로옹
뒤여소ᄒᆞᆼ부죡인ᄃᆞ로벽일표동처라ᄒᆞ나이다원
쉬그셩명을듯ᄂᆞᆫ바야흐로희희이셔다라ᄌᆞ시보여
소죡일쥬계대사ᄋᆡ방면ᄭᅦᄌᆞᆯ히견소년이라원쉬

니러나엿지이 곳의 이로보고 소년이 우러ᄂ 원슈을
보더니 칼을 나ᄇ 빗ᄎ 잇셔 왈 소장 동이 만복이영
셔회음 도룡의 죽ᄉ와 더경히 물우셧더니 이제 원
쥭노안ᄂ 현ᄒ ᄲ부의 군병이 잇쥴 사ᄃ 슐총둥
을 쥭록ᄒ기의 총젹이 나확ᄒ여 일쥭이 살인
범변ᄒᄃ 빵병ᄒ여 이곳의 산영질ᄒ여 싱아ᄒ다가
이쇄 원슈 평계을 셥으시 블듯ᄃ 왓나이다 원슈위
희허여 져즈을 시험ᄒ라 ᄒ니 년인이 창검을 둘ᄅ
말거울 나빨달녀 좌작ᄒ 평ᄒ와 함련홍ᄃ을 훈ᄂ 법
이초록 쥐이 ᄋ허며 음가ᄉ 쳐쇄ᄃ 범가ᄉ치 정소나좌
우삼준 쇄장이 칙ᄃ 칭찬을 ᄂ지라 원슈 려희

ᄒᆞ여동굴로좌익장군을삼ᄂᆞᄆᆡ다ᄅᆞᆫ노우아
장졸을삼아ᄏᆡ군을휘동ᄒᆞ여무쟝산을에와ᄊᆞ
ᄅᆞ고져산영질헐ᄂᆞᆫ셔ᄅᆞ가로향은산쳔을ᄭᅳᆯᄅᆞ거
치황겁ᄂᆞᆫ바람을일워시ᄂᆡ산쳔로복의살거블
ᄒᆡ엿ᄃᆞ즉죽비금은현련에옷ᄒᆡ것ᄃᆡ타낫ᄃᆞᆯ로밤
물이어죽홀을[illegible]에와불을노로ᄒᆞᆫ로시평라되
ᄃᆞ물뫼갓지장이삼군을호궤ᄒᆞᆫ후비로소ᄒᆡᆼ군
ᄒᆞ여남으로나아갈ᄉᆡ차시나ᄅᆡ만왕나타이ᄅᆞ군을모
되ᄒᆞᆷ국지계와보견ᄃᆡ일봔방비ᄒᆡᄒᆡ업스물보ᄂᆞᆫ
뒤회ᄒᆞ여온남국진난용을함몰ᄒᆞ평이어ᄂᆞᆯ
산즉을엿본이ᄂᆞᆫ병을세기ᄅᆞᆯ그날와바로남경을
병으로ᄒᆡ여ᄂᆡ뒨숙의ᄃᆡ군이지강지계의이로ᄒᆡ

거재을가려싸호기을남헌후호룡환유ᄒ여
사쳑이알네후룡신을덩허지쳑을분변치못
ᄒ여허다장졸이눈을솟지못ᄒ나평아낭즛
토병이쇄번싸화쇄번쉬ᄒ여감히싸호지못ᄒ더ᄂ
오회려을직희여대군오기을기다리더니원쉬물
왈후룡신이여거셔벗나되난노뒤열십리셔
되미ᄂ다고ᄒ되어더쇽히ᄂ뒤왈극진정제나이
라원쉬일이번위는지쾌치못ᄒ여ᄒ더ᄂ젼봉장
녀쳔룡을오이죽고병오쳔게을거나려젼부
션봉을삼고스욱졍을오룡군스마을삼고룡듕의
달는호국이되여후룡신을바ᄅ진병ᄒᆯ셰졔
삼일의산하상나밧거진치고원쉬초스이와운졸

을불너왈내봉제후룰생령제을본후나라
을장으로퇴ᄒᆞ여ᄀ시야삽보정의원쉬소ᄂᆞᆫ바동룰
마ᄋᆞᆯ은노젿은병장기을가지ᄀ추리로병으로길
올인도해퍼ᄂᆞᆫᄀ후궁신하의다ᄀ좌보내불다
드산이되돌다ᄂᆞᆫ틈이벗겨겸어져갓ᄀ순변신내
의도거줄이엄거눌원쉬평괴와드쇽을ᄂᆞᆫ셔에
살겨보ᄀ다시산상에올나ᄲᆞᆫ진을굽어보니두룰
산동낭벅어보빈거부쇽헌ᄇᆞᆫ병이후벽여병식
후숙싱병쇽동쥬ᄒᆡ여ᄯᆡ시마대되ᄂᆞᆫ굴이형쇄지
못ᄒᆞ나좆ᄀ휘ᄀ해여방비혀연거ᄂᆞᆯ원쉬ᄂᆞᆫ쳔이살ᄒᆡ
드런ᄃᆞᆫ혀ᄂᆞᆫ벗쥐이와소ᄂᆞᆫ바을도랴보이ᄋᆞᆯ진군이쟈진
쇄을은일ᄋᆞᆯᄂᆞᆫ나소ᄂᆞᆫ비올소리공이비룩아가병쇄을

보아시나이다 텬진법은아지못ᄒᆞ나이다 원슈ᄒᆞᆫ
왈나라이나라이비록만흔인물이다반더시면
걸이즈다이젼일흠은쳔장견이나ᄒᆞᆫ을ᄃᆡ운텬
쳔장셩이ᄌᆞᄒᆞᄂᆞᆫ별이엇셰계제ᄒᆞ평텬ᄌᆞ북방
의랑ᄎᆞ을갑토아현묵방위을직희ᄂᆞᆫ시절이오ᄒᆞᆫ
텬ᄌᆞᄒᆡ왼놀침고ᄒᆡ여젼시셩이되여이졔나라의
진법이ᄂᆞᆯ운ᄒᆡ여시니밋일보ᄌᆞᄅᆞᆫ법텬ᄌᆞ더ᄒᆡᄌᆞᆯ
되니그ᄒᆡ여나쳔장셩은살별을ᄎᆞ지ᄒᆞᄂᆞᆫ별이
타ᄉᆡᆼ왕방을ᄃᆡ기ᄒᆞ나이이졔나라의젼이ᄇᆡ티울셩
왕방으로두어시니그러ᄒᆞ믈보리ᄌᆞᄅᆞ군진의도라
와군ᄉᆞ을ᄀᆞᆯᄂᆡ여삼십니밧게곳ᄒᆞ진치ᄂᆞᆫ삼군을일
은군후원슈년야ᄒᆞ여쳔문을보더니제설이되

진을다사옴ᄒᆡ 후통신셔 북방여ᄅᆞᆯ 바ᄉᆞ기 닐은 ᄌᆞᆯ
절을 치ᄃᆞ 군중의 호령을 오ᄂᆞᆯ 오시의 졉젼ᄒᆞ여
미시의 과ᄒᆡ 퇴ᄒᆞ니 등ᄒᆞ이 달노 오쳔거을 거나ᄒᆡ
후통신 남으로 숙 벽 보박거미 북훈여 나탁의가
는 길을 빠으라 낭장이 쳥병을ᄃᆞ 거ᄃᆡ 파이 ᄒᆡ나
탁이 쓰련 후통신 남편의 결진ᄒᆞ여 새호불ᄌᆞᆫ
나낭 왼쳐 흉ᄒᆞ금 강으로 괴상의나 석나하 ᄒᆞ발을
근ᄂᆞᆫ 나나탁이 진편의 나와서 졔ᄒᆞ거ᄂᆞᆯ 왼쳐 바랍로
나나탁이 신장이 구쳑이오 ᄒᆡ파 ᄲᆞᆯ아 ᄌᆞ름이오 코이
놉ᄃᆞ 눈이 깁흐며 ᄇᆞᆯ근 숙ᄲᆞ의 동ᄌᆞ 열ᄂᆞᆯ이고 상에
영득이 ᄃᆡ엿셔 ᄒᆞ라 좌숙의 장검을 잡ᄃᆞ 우숙의 ᄎᆡ
러울 쥐ᄃᆞ 크게 웨여 왈 ᄃᆡ명은 현졔 진쥬이라

쳥곳이 … 즁 … 이쳐운슈ᄒᆞ여인와가잇셔ᄃᆞ방
울손블고져ᄒᆞ여ᄂᆞ니밧비되ᄂᆞᆫ줄여기웃복이엄게
취화원쉬대초를너자우물로죄보아나ᄒᆞ희몰쳐
나가와호리오녀쟝군이호츅을거스리ᄇᆡᆨ넉복
울가며바로기다라바로나락을취코져ᄒᆞᆯ나미칠
홉의쇠일원대쟝이나와고봉츅향의녀쳔룡
이만쟝내려마하의션ᄃᆡ지나빈진의쇠북스리
진동ᄒᆞ며남리만쟝이일시의나와녀쟝군라쳐ᄒᆞ
내병진의쇠손계방쳔화구을몰다나와녀쳔봉
을젹용를니콩법이젼을쥰를려ᄒᆞ낭진순쟝이ᄊᆡ
화심녀향의블분승부ᄒᆞ나락이며조를너자츅
등츅거울ᄒᆞᆫ번쳘죄퍼일진광풍이니러

나배후홍생모히와검은티끌이날녀병장
을덥허오니괴혁을분변치못ᄒᆞ여제장군졸
이눈을ᄯᅳ지못ᄒᆞ거ᄂᆞᆯ평챵은을거두ᄅᆞ시눈은
거울진편의쏫ᄂᆞᆫ진을변ᄒᆞ여부수쳥의쳘대진
을쳐ᄎᆞᆫ방문을닷으니긴ᄒᆞᆼ이평안ᄒᆞᆫ대ᄒᆞᆫ진
이청ᄂᆞ치못ᄒᆞ더라원슈ᄂᆞᆫ로ᄂᆞᆫ홍구ᄎᆞᆨ을문ᄒᆞ더
니씨시을보린디평평ᄒᆞ여살ᄎᆞᆺ해화승을ᄅᆞ라
각ᄂᆞᆫ불ᄒᆡ대ᄂᆞᆫ쇠북홍이부려후홍신모티와흙이
이ᄂᆞᆫ진으로날니거ᄂᆞᆯ병진ᄎᆞᆨ비병중과쇠화순란
필을일시의살니나ᄂᆞᆫ살이바팔을쌀아별각
제동을니후홍신의연ᄒᆞ여징니전갓흔토리의불이
변화경각간의일뢰후홍신이화산이되여바람

조혀여 마ᄂᆞᆫ 쇄화 ᄉᆞ샹ᄒᆞᆷ을 쇄 고령 ᄃᆞᆼᄃᆞᆨ히 ᄒᆞᆷ
셩이 더진 ᄌᆞᆯ 며원쉬되 군을 모뢰시 살허 니 ᄒᆡᆨ이 봄
올 ᄲᆡ여 평낭으로 다라나니 원쉬 ᄒᆞ로 긔 아니ᄒᆞᆫ 근뒤
군을 옴겨 후룡산 남편으로 오십여 리울 나와 결
쳐ᄃᆞᆫ 밤을 지ᄂᆡᆯ서 소손이 ᄃᆞᆫ 와ᄂᆞᆯ 원쉬의 용병ᄒᆞᆷ 신ᄇᆞᆫ
와룡의 용병으로 ᄒᆞᆫ 헬 가ᄒᆞ나이 번 후룡산 쇄
홈의 소경이 와 아ᄌᆞ여 결 퇴복ᄒᆞ든 번ᄃᆞᆨ가 지라 ᄭᅴ시
셔북훙 ᄲᅮᆯ기 울어지아 시며 휴룡산 흐베어 불의 말
허화아 갓쳐되 본어 긔한 일이나가 원쉬 소왈 랑쉬
리ᄅᆞᆫ 견상 룡천 불허하 쥘과 리울 룡쳐 복ᄒᆞ대 ᄃᆞᆫ 지욕 쉬
라 허되 운용 후룡산을 보ᄭᅦ 평원 랑아여 ᄂᆡ 룡이 엄ᄃᆞᆫ
쳔옥화ᄒᆞ 후의로 무이회 소ᄂᆡ 시ᄆᆞ상ᄒᆞᆫ아 산이 아니라

더라 동굴마 달이ᄂᆞᆫ 왈 곰일 나라이 남으로 다
하ᄂᆞᆯ 쥴마로시ᄃᆞᆫ 만일 한장ᄎᆞᆯ 더령 남방으로
에 복허 엿ᄌᆞᆫᄃᆞᆯ 반다시 나라을 셩슈헐거시여ᄂᆞᆯ 엇
지아니 보ᄂᆡ시니 잇ᄒᆡ 원쉬 소왈 ᄂᆡ 남만을 그ᄂᆡ음으
로 항복 받ᄉᆞ와 허나니 첫ᄶᆡ 홈의 집ᄭᆞᆺ 나라을 노
아 그리 조을라 허게 ᄒᆞ니 ᄯᅢ 갈부후의 질중질
곰허 블 듯지 못ᄒᆞᆯ엿ᄂᆞᆫ 보ᄯᅢ 장이 ᄉᆞᆫ한란부ᄒᆞᆯ어
라 원쉬 형ᄌᆞᆯ 여 남으로 가ᄇᆡ 나라의 춘렴을 담문
을 내ᄋᆡᆼ의 오로동동의 드러가다시 ᄶᆡ ᄌᆞᆫ을 ᄉᆞ습헌다ᄒᆞᆯ
거ᄂᆞᆯ 보롱 동으로 ᄭᅩᆺᄎᆞᆫ 갈셔 뒤리 나라의 동한 ᄯ 다섯ᄉᆞᆺ
거와 ᄶᆡ일 동은 쳘무동이오 ᄶᆡ이 동은 뫼을 동이오

졔삼동은화ᄅᆞ동이오졔오동은오록동이니혈목
동의나타이잇시나가ᄅᆞ우앙장흥라ᄒᆞᆫ병이계갓골 졔ᄉᆞ이ᄒᆞᆫ
잇셰고ᄎᆞ을보ᄅᆞ신체험ᄒᆞᆫ줄더라원쉬ᄂᆞᆫ병다
혜오록동길을부ᄅᆞ며ᄂᆞᆫ병이려뫃을오록동이오
곳의셰베여뢰나길에험ᄒᆞᆫ줄ᄅᆞᆫ반ᄉᆞ슈을져나가나이
다원쉬우어장마달노이쳔계을거ᄂᆞ뢰문뢰가길
을열ᄂᆞᆫ나즐니ᄂᆞᆫ달을휭ᄒᆞᆫ줄며셴퇴험ᄒᆞᆫ서산쳬를곰
줄며셕가이참암ᄒᆞᆫ뢰길이엄계를ᄂᆞᆯ달을이날굴ᄇᆡ
이며돌을굴며뢰도ᄒᆞᆫ며가더날이쇄산의기울ᄒᆞᆫ려
ᄒᆞᆫ니형ᄒᆞᆫ곳즐차ᄒᆞᆫᄒᆞᆫ손을쉬며더ᄒᆞᆫ을기다리면
원쉬이ᄅᆞ러보ᄅᆞ뫌이곳ᄅᆞ험ᄒᆞᆫ며ᄒᆞᆼ렬곡을며

놀뢴쉬ᄂᆞᆫ홍을신칙ᄒᆞ여ᄃᆞᆯ내자ᄒᆞ되되지아니ᄒᆞ나
ᄌᆞᄃᆞ장홍의안위병셰을보려ᄒᆞ올연ᄀᆞ홍이웃수
어리며ᄀᆞᆫ졸의등셩불ᄉᆞᆯ듯ᄒᆞ여ᄉᆡᆼᄒᆞᆫᄃᆞ셔엿다
졸니뢴쉬대경ᄒᆞ여주ᄲᅵ이러ᄒᆞ니ᄀᆞᆫ츙을출ᄒᆞᆫ헤
ᄂᆡᄀᆞᆫ령을살펴보니졔졸이나리올등이ᄂᆞᆫ동셩
이러ᄒᆞᆫ졸니뢴쉬침음난주의ᄃᆞ병을몰ᄋᆞᆯ여곳
의흑시옛날편장졸ᄃᆞᆫᄎᆞᆺ지아소지등이ᄂᆞᆫ곳지셩ᄉᆞᆯ
여다ᄇᆞᆫᄇᆞᆫ슈이셔물듯ᄒᆞ라ᄒᆞᆫ일은모로나이더졸게
놀뢴쉬침음이려ᄒᆞ여모함셤이ᄀᆞ편ᄒᆞ나병ᄒᆞᆫᄀᆞ졸
더엽수여쳘오슨ᄃᆞ졸이ᄒᆞᄂᆞᆫ쳥인ᄅᆞᄆᆡᆼ산셩을발
ᄒᆡ지아넨다ᄒᆞ나흑산졸의기ᄲᅵ잇쇠지낭